

#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성격특성이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미치는 영향

최 영 임

장 휘 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남녀 대학생(405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성격특성(정서적 불안정성과 외향성)이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성역할 정체감 척도와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척도, 정서적 불안정성 척도 및 외향성 척도를 실시하여 연구한 결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동성과의 의사소통을 더 어렵다고 지각하였으나 이성과의 의사소통 지각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역할 정체감은 동성과는 물론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어, 양성적 및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적 혹은 미분화의 성역할 정체감 소유자들보다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더 적게 지각하였다. 또한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그리고 외향성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보다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을 더 어렵다고 지각하였다. 성역할 정체감과 성격특성이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비교한 결과, 남녀 구분없이 외향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이 정서적 불안정성이었으며, 남성성과 여성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주요어 :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성역할 정체감, 성격특성

우리는 매일 매일 타인과 의사소통하면서 생활한다. 의사소통은 우리 생활의 중요한 측면임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지각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의사소통을 할 때 오히려 편안해지고 의사소통 자체를 즐기는 사람도 있다. 의사소통을 어렵다고

지각하는 소위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이란 의사소통을 할 때 타인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부호화하고 부호화한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을 어렵다고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Edwards 등, 2001). Knapp, Ellis 및 Williams (1980)는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을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장벽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이란 타인과 대화를 나눌 때 어색함이나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한다거나 부정확한 의사소통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초기의 의사소통 연구자들은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보다는 실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연구하고 남성과 여성들은 상이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Zimmerman & West, 1975; Thorne & Henley, 1975; West & Zimmerman, 1977). 이 연구자들에 의하면, 남성들은 이성과의 대화에서 힘을 과시하고 우월적인 구조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대화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여성과는 차이를 나타낸다. Maltz와 Borker(1982)도 남성과 여성들은 대화시에 반응하는 방식은 물론 질문하는 방식과 충고하거나 문제를 공유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남성들은 주로 그들의 전문성이나 우월함을 확립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여성들은 관계적 친밀성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 대화한다고 주장하였다. Tannen(1993) 역시 남성들은 언어적 메시지를 힘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반면, 여성들은 관계에 기초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남성들은 전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대화상대자가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지 혹은 우월함을 과시하려고 하는지를 판단하나 여성들은 전달되는 메시지가 나와 협조하고 나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성차를 보인다는 것이다.

문제는 개인의 의사소통 방식이 남녀에 따라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1970년대 연구들이 의사소통의 성차문제를 주로 연구하였다면, 1980년대에 이루어진 이 분야의 많은 연구들은 개인의 성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이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 예로서 Burke와 Reitze(1981) 혹은 Drass(1986) 같은 연구자들은 의사소통시에 남성이나 여성이나와는 상관없이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대화방식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특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용사 쌍(예, 강한-약한, 시끄러운-조용한)을 사용하여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을 측정 한 Drass(1986)는 동성쌍간에 이루어지는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의사소통 방식이 달라지며,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보다 상대방의 말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일찍이 McCall과 Simmons(1966) 및 Stryker(1980)도 성역할 정체감을 사회적 지위와 연합된 내면화된 의미체계로 개념화함으로써 남녀간의 의사소통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성역할 정체감을 통하여 표현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최근 Basow와 Rubenfeld(2003)는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양육적/표현적 특성(여성성)을 지닐 가능성이 더 많고 기계적/활동적 특성(남성성)을 지닐 가능성은 더 적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성역할 정체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된 차이를 성차로 잘 못 해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Edwards(1998)는 성이나 성역할 정체감이 개인의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들은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 지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고 성과 성역할 정체감이 메시지의 해석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는 한편 양자가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는 175명의 남녀 대학생들에게 네 개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모호한 메시지를 주고 그 내용이 지지적인지 아니면 통제적인지를 평가하게 하는 동시에 성역할 정체감 검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의 성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이 남녀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고 남녀 모두 동성과의 의사소통보다 이성과의 의사소통을 더 어렵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지각하는 사람은 이성과의 의사소통하는 남성들이었고, 그 다음은 이성과의 의사소통하는 여성, 동성과의 의사소통하는 여성 그리고 동성과의 의사소통하는 남성 순으로 의사소통을 어렵다고 지각하였다.

최근에 Edwards와 Hamilton(2004)은 이성과의 의사소통에서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의 전형적 특성인 양육성과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의 전형적 특성인 우월성이 성별과 메시지에 대한 협조적 해석 사이를 중재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성과의 의사소통에서 개인의 성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장휘숙과 최영임(2004)은 대화시에 사용되는 부정적 중단(화자의 발언을 중단시키거나 화자의 발언권을 빼앗는 발성)은 성보다는 성역할 정체감의 영향을 받고 긍정적 중단(화자의 의견에 동의나 공감을 표하거나 화자의 말을 완성시키기 위한 발성)의 사용이나 대화량은 성역할 정체감보다 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함으로써

성과 성역할 정체감 모두 개인의 의사소통 방식에 영향을 주지만, 영향주는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추론할 때, 성과 성역할 정체감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지각에도 각기 상이한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성역할 정체감이란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의 정도와 형태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남성은 남성적 특성만을 지니고 있고 여성은 여성적 특성만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었으나 Bem(1974)은 전통적인 남성성과 여성성 외에도 양성성과 미분화의 개인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선행연구들(Broverman 등, 1972; Eagly, 1987)은 여성적 특성을 지닌 강하게 성유형화된 여성들은 양육적, 표현적 특성에 기초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의사소통하고, 전형적인 남성적 특성을 지닌 남성들은 자기주장적, 경쟁적 특성에 기초한 성역할 고정관념에 의거하여 의사소통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렇다면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가 모두 높은 소위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나 두가지 점수가 모두 낮은 미분화의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가? 예측하건대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의 소유자들은 동조나 일치를 강요하는 상황에서는 남성 동료들과 같이 행동할 것이고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 주어야 할 상황에서는 여성 동료들과 같이 행동할 것이므로 의사소통을 할 때도 남성적 특성이나 여성적 특성만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이나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낮은 미분화의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과는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개인의 성격특성 또한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증거로서 McLeod와 Cohen(1993)은 연구대상자들에게 위협적인 단서가 없는 문장들을 주고 그 문장이 위협적인지 아닌지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높은 특성불안 수준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낮은 특성불안 수준의 소유자들보다 동일한 문장을 더 위협적인 방식으로 지각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일찍이 McCroskey와 Ralph 및 Barrick(1970)은 의사소통 불안이 외향성과 부적으로 상관되어 있다고 보고하였고 Keaten 등(1993)은 의사소통 불안과 과묵함 사이에 높은 상관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근에 Edwards 등(2001)과 같은 연구자들은 외로움과 언어적 공격성이 메시지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함으로써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을 증가시킨다고 밝혀 개인의 다양한 성격특성과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사이에 높은 상관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성과 성역할 정체감이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려고 한다. 성과 성역할 정체감은 동성이나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성역할 정체감을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이분하여 연구한 선행연구들 (Edwards, 1998, 2000; Edwards & Hamilton, 2004)과는 대조적으로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및 미분화로 구분하고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과의 관계를 검토하는 동시에 개인의 성격특성 중 정서적 불안정성과 외향성이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연구하려고 한다. 현재까지 정

서적 불안정성이나 외향성과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기는 하지만, 두가지 성격특성은 성차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을 뿐아니라 개인의 특성불안과 문장이해의 관계(McLeod & Cohen, 1993)나 의사소통 불안과 외향성의 관계(McCroskey 등, 1970)를 고려할 때, 독립적으로 혹은 성과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과 두가지 성격특성(정서적 불안정성과 외향성)이 어느 정도로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함으로써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도 함께 규명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남녀의 정서적 불안정성과 외향성에 따라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과 두가지 성격특성은 각기 어느 정도로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영향을 주는가?

## 방 법

### 연구 대상자

C 대학교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표집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을 하거나 응답을 누락한 학생들을 제외한 분석대상자

는 전체 405명이었다. 이중 남학생은 196명이었고 여학생은 209명이었으며, 그들의 평균 연령은 각각 21.827( $SD=2.445$ )세와 20.998( $SD=1.365$ )세였다. 설문지는 2005년 5월에 수업시간을 이용해 실시되었고, 실시시간은 약 30분이 소요되었다.

## 척도

### 성역할 정체감 척도

Bem(1974)이 개발한 BSRI(Bem Sex Role Inventory)에 기초하여 정진경(1990)이 제작한 한국 성역할 검사(KSRI)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60개의 성격특성 문항들을 포함하는 이 검사는 각각 20개씩 남성성 문항과 여성성 문항 및 긍정성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채점은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 평균을 각각 독립적으로 계산하고, 점수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하여 남성성 점수와 여성성 점수가 모두 높은 양성성 집단, 남성성 점수는 높고 여성성 점수는 낮은 남성성 집단, 여성성 점수는 높고 남성성 점수는 낮은 여성성 집단, 그리고 두 점수 모두 낮은 미분화 집단의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Cronbach  $\alpha$ 로 계산한 남성성 척도와 여성성 척도 및 긍정성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각각 .898, .868, .718이었다.

###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척도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Edwards와 Hamilton(2004)이 사용

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Edwards와 Hamilton은 동일한 문항을 포함하면서도 '동성'이나 '이성'이라는 단어만 바꾸어, 동성과 이성에 대해 각기 3문항씩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Edwards와 Hamilton의 척도를 확장하여 동성과 이성에 대해 각기 5문항씩의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 10개의 질문을 포함하는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질문문항은 '나는 동성(이성)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나는 동성(이성)과 이야기할 때 내 말뜻을 잘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리커트 형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큰 의사소통 어려움을 지각한다고 해석된다. Cronbach  $\alpha$ 로 계산한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는 각각 .793과 .781이었다.

### 정서적 불안정성과 외향성 척도

정서적 불안정성과 외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NEO-PI의 1990년도 판에 기초하여 제작된 노동부(2000) 검사가 사용되었다. 이 검사는 다섯 개의 성격특성(정서적 불안정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호감성, 성실성)과 28개의 하위척도를 포함하며 전체 18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연구는 정서적 불안정성과 외향성 검사만 사용하였다. 정서적 불안정성 검사는 6개의 하위 척도(불안, 분노, 우울, 자의식, 충동성, 스트레스 취약성)를 포함하고 전체 3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향성 검사는 5개의 하위척도(온정성, 사교성, 리더십, 적극성, 긍정성)와 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가지 검사의 하위척도들을 무시하고 전체 점수를 계산하였으며, Cronbach  $\alpha$ 로 계산한 내적일관성 계수는 정서적 불안 정성 .927 그리고 외향성 .910 이었다

## 결 과

### 1.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 1)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성과 성역할 정체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2(성; 남성, 여성)  $\times$  4(성역할 정체감;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의

2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은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이다.

2원변량분석 결과, 성의 주효과( $F(1, 397)=20.19, p<.001$ )가 유의하여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동성과의 의사소통을 더 어렵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역할 정체감의 주효과( $F(3, 397)=14.32, p<.001$ )가 유의하였다. 성역할 정체감에서의 구체적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ukey 검증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양성적 및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적 및 미분화의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는 사람들보다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더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 2)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미치는 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표 1.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	성역할 정체감	N	지각된 의사소통 어려움 평균(SD)	
			동성	이성
남성	양성성	56	1.61(0.38)	2.06(0.54)
	남성성	39	1.82(0.45)	2.24(0.54)
	여성성	37	2.08(0.64)	2.63(0.58)
	미분화	64	2.00(0.44)	2.61(0.53)
	전 체	196	1.87(0.50)	2.39(0.60)
여성	양성성	61	1.95(0.44)	2.21(0.56)
	남성성	42	1.99(0.54)	2.23(0.61)
	여성성	40	2.26(0.57)	2.58(0.63)
	미분화	66	2.18(0.38)	2.52(0.56)
	전 체	209	2.09(0.49)	2.38(0.60)
전 체	양성성	117	1.79(0.44) <i>a</i>	2.14(0.56) <i>a</i>
	남성성	81	1.90(0.50) <i>a</i>	2.24(0.57) <i>a</i>
	여성성	77	2.17(0.61) <i>b</i>	2.61(0.60) <i>b</i>
	미분화	130	2.09(0.42) <i>b</i>	2.56(0.55) <i>b</i>
	전 체	405	1.98(0.51)	2.38(0.60)

\* 사후분석 결과: a<b

여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서와 동일하게, 표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성역할 정체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2(성; 남성, 여성)×4(성역할 정체감,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의 2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의 주효과와 성과 성역할 정체감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역할 정체감의 주효과 ( $F(3, 397)=17.50, p<.001$ )는 유의하였다. Tukey 검증으로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서와 동일하게 양성적 및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이 여성적 및 미분화의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 보다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더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성격특성에 따른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 1) 정서적 불안정성의 영향

정서적 불안정성에 따른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먼저 남녀 각각의 정서적 불안정성 점수의 50%를 기준으로 고, 저 집단을 구

분하고, 성과 정서적 불안정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2(성별; 남, 여)×2(정서적 불안정성; 고, 저)의 2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는 정서적 불안정성에 따른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이다.

표 2의 결과를 바탕으로 2 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 $F(1,401)=26.00, p<.001$ )과 정서적 불안정성( $F(1,401)=54.44, p<.001$ )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즉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 보다 동성과의 의사소통을 더 어렵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 정서적 불안정성에 따른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대한 2원변량분석 결과 정서적 불안정성( $F(1, 401)=59.48, p<.001$ )의 주효과만 유의하였고 성의 주효과나 성과 정서적 불안정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 보다 이성과의 의사소통을 더 어렵다고 지각하였다.

### 2) 외향성의 영향

외향성에 따른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서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표 2. 성과 정서적 불안정성에 따른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	정서적 불안정성	N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평균(SD)	
			동성	이성
남성	고	103	2.07(0.51)	2.62(0.57)
	저	93	1.65(0.40)	2.13(0.52)
	전체	196	1.87(0.50)	2.39(0.60)
여성	고	102	2.22(0.50)	2.58(0.63)
	저	107	1.96(0.44)	2.20(0.52)
	전체	209	2.09(0.49)	2.38(0.60)
전체	고	205	2.14(0.51)	2.60(0.60)
	저	200	1.82(0.45)	2.17(0.52)
	전체	405	1.98(0.51)	2.38(0.60)

정서적 불안정성에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남녀 각각의 외향성 점수의 50%를 기준으로 고, 저 집단을 구분하고 성과 외향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2(성별; 남, 여)×2(외향성; 고, 저)의 2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성과 외향성에 따른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이다.

외향성에 따른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서의 차이를 2원변량분석한 결과, 성( $F(1, 401)=25.42, p<.001$ )과 외향성( $F(1, 401)=51.68, p<.001$ )의 주효과가 유의하였고, 성과 외향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그리고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이 외향성이 낮은 사람들 보다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더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향성에 따른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서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2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의 주효과나 성과 외향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외향성( $F(1, 401)=104.50, p<.001$ )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즉 외향성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더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의사소통 지각에 미치는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과 정서적 불안정성 및 외향성의 상대적 영향

개인의 성역할 정체감과 정서적 불안정성 및 외향성이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남성성과 여성성, 정서적 불안정성 및 외향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남녀 각각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는 성역할 정체감을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으나 회귀분석을 위해 성역할 정체감을 남성성과 여성성의 연속변인으로 점수화하였다.

#### 1)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 정체감과 정서적 불안정성 및 외향성의 상대적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표 4와 같이 각 변인들 사이의 상호상관을 계산하였다.

표 4에 의하면, 남성들의 경우,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은 남성성과 여성성 및 외향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정서

표 3. 성과 외향성에 따른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의 평균과 표준편차

성별	외향성	N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평균(SD)	
			동성	이성
남성	고	94	1.69(0.40)	2.11(0.52)
	저	102	2.03(0.54)	2.64(0.55)
	전체	196	1.87(0.50)	2.39(0.60)
여성	고	108	1.93(0.48)	2.12(0.49)
	저	101	2.26(0.43)	2.67(0.58)
	전체	209	2.09(0.49)	2.38(0.60)
전체	고	202	1.82(0.46)	2.11(0.50)
	저	203	2.14(0.50)	2.66(0.56)
	전체	405	1.98(0.51)	2.38(0.60)

표 4. 남성과 여성의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과 성역할 정체감 및 성격특성간의 상호상관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남성성	여성성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0.26 ***	-0.11	-0.46 ***	0.30 ***
남성성	-0.38 ***	0.29 ***	0.50 ***	-0.29 ***
여성성	-0.20 **	0.48 ***	0.21 ***	-0.13 *
외향성	-0.44 ***	0.55 ***	0.32 ***	-0.37 ***
정서적 불안정성	0.39 ***	-0.44 ***	-0.28 ***	-0.45 ***

\* $p < .05$ , \*\* $p < .01$ , \*\*\* $p < .001$ , 대각선 아래: 남성, 대각선 위: 여성

적 불안정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여성들의 경우에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은 남성성 및 외향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남성들은 남성성이 낮고, 여성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외향성이 낮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을 수록 의사소통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하고, 여성들은 남성성이 낮고 외향성이 낮으며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표 4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회귀 모형은 유의하였다 ( $F(4, 191)=16.249, p < .001$ ). 표 5에 제시된 바와같이, 정서적 불안정성과

외향성은 남성에서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전체 변량의 27.5%를 설명하였다.  $\beta$ 값을 비교해보면, 남성의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외향성이고 그 다음이 정서적 불안정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들에 대한 분석결과 회귀모형 역시 유의하였다 ( $F(4, 204)=15.323, p < .001$ ). 남성들과 동일하게 정서적 불안정성과 외향성은 여성들의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전체 변량의 23.1%를 설명하였다.  $\beta$ 값을 비교해보면, 여성의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가장 큰 영

표 5.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과 성격특성이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미치는 영향

	변인	B	$\beta$	t	R <sup>2</sup>
남성	남성성	-0.09	-0.14	-1.70	0.254
	여성성	0.01	0.01	0.20	
	정서적 불안정성	0.22	0.21	-2.88***	
	외향성	-0.29	-0.28	-3.53**	
여성	남성성	-0.02	-0.03	-0.38	0.231
	여성성	0.00	0.00	0.06	
	정서적 불안정성	0.17	0.16	2.33*	
	외향성	-0.47	-0.39	-5.26***	

\* $p < .05$ , \*\* $p < .01$ , \*\*\* $p < .001$

향을 미치는 변인은 외향성이고 그 다음이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남성들과 동일하였다.

## 2)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성역할 정체감과 정서적 불안정성 및 외향성의 상대적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먼저 각 변인들 사이의 상호상관을 계산하였다.

표 6에 의하면 남성들의 경우,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은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서와 동일하게 남성성, 여성성 및 외향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

다. 여성들의 경우에도 동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서와 동일하게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은 남성성 및 외향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그리고 정서적 불안정성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남성들은 남성성이 낮고, 여성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외향성이 낮고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하였고, 여성들은 남성성이 낮고 외향성이 낮으며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의사소통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표 6의 결과를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하였다( $F(4, 191)=25.993$ ,

표 6. 남녀의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과 성역할 정체감 및 성격특성간의 상호상관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남성성	여성성	외향성	정서적 불안정성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0.35***	-0.08	-0.52***	0.37***
남성성	-0.40***		0.29***	0.50***	-0.29***
여성성	-0.23***	0.48***		0.21***	-0.13*
외향성	-0.54***	0.55***	0.32***		-0.37***
정서적 불안정성	0.45***	-0.44***	-0.28***	-0.45***	

\* $p < .05$ , \*\*  $p < .01$ , \*\*\* $p < .001$ , 대각선 아래: 남성, 대각선 위: 여성

표 7. 남녀의 성역할 정체감과 성격특성이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미치는 영향

단계	모형	B	$\beta$	t	R <sup>2</sup>
남성	남성성	-0.05	-0.07	-0.86	0.352
	여성성	0.00	0.00	-0.07	
	정서적 불안정성	0.32	0.25	3.69***	
	외향성	-0.49	-0.39	-5.38***	
여성	남성성	-0.08	-0.10	-1.48	0.321
	여성성	0.05	0.06	0.97	
	정서적 불안정성	0.27	0.20	3.19**	
	외향성	-0.62	-0.41	-5.95***	

\* $p < .05$ , \*\*  $p < .01$ , \*\*\* $p < .001$

$p<.001$ ).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서적 불안정성과 외향성은 남성들이 경험하는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전체 변량의 35.25%를 설명하였다.  $\beta$ 값을 비교해보면 남성의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외향성이고 그 다음이 정서적 불안정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회귀 모형은 유의하였다 ( $F(4, 204)=24.095, p<.001$ ). 남성들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서적 불안정성과 외향성은 여성들의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전체 변량의 32.1%를 설명하였다.  $\beta$ 값을 비교해보면 여성의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외향성이고 그 다음이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남성들과 동일하였다.

## 논 의

이 연구는 대학생들(405명)을 대상으로 개인의 성과 성역할 정체감 및 두가지 성격특성 즉 정서적 불안정성과 외향성이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성과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정서적 불안정성과 외향성에 따라 남녀의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성역할 정체감과 두가지 성격특성은 어느 정도로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성역할 정체감 척도와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 척도 및 정서적 불안정성과 외향성 척도가 사용되었다. 변량분석 결과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동성과의 의사소통을 더 어렵다고 지각하였고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다. 즉 양성적 그리고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적 및 미분화의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보다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더 적게 지각하였다. 또한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동성은 물론 이성과의 의사소통을 더 어렵다고 지각하였고,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더 적게 지각하였다. 이와함께 성역할 정체감을 남성성과 여성성의 연속변인으로 점수화한 후 두가지 성역할 정체감과 정서적 불안정성 및 외향성이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성이나 여성의 경우 모두에서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외향성이었고 그 다음이 정서적 불안정성이었으며, 성역할 정체감은 유의한 설명량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동성이나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은 성이나 성역할 정체감보다 정서적 불안정성이나 외향성같은 개인의 성격특성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우선 성과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과의 관계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동성과의 의사소통을 더 어렵다고 지각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Edwards(199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였으나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관계지향적이기는 하지만, 서로 경쟁하고 대화상대자에 대해 시기나 질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동성과의 의사소통을 더 어렵다고 지각하는지도 모른다. 대조적으로 성역할 정체감은 동성과는 물론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도 영향을 주어, Edwards(1998)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Burke와 Reitze(1981) 및 Edwards와 Hamilton(2004)의 연구와는 일치하는 결과였다. 즉 양성적 및 남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여성적 및 미분화의 성역할 정체감 소유자들보다 동성 및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더 적게 지각하여 성역할 정체감과 자기존중감의 관계(Gilbert, 1981)나 성역할 정체감과 성취(Spence & Helmreich, 1983)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의사소통에서 성역할 정체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성역할 정체감과 관련된 차이를 성차로 잘 못 해석할 수 있다는 Basow와 Rubenfeld(2003)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서, 의사소통 연구에서 성역할 정체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러나 회귀분석을 위해 성역할 정체감을 남성성과 여성성의 연속변인으로 점수화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 남성성과 여성성은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성만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언뜻 보면 여성성은 남녀 모두에서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과 정적 상관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되지만, 높은 수준의 남성

성과 여성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의 소유자들이 동성이나 이성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더 적게 지각한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낮은 여성성은 오히려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성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여성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높은 여성성은 곧 전형적인 여성적 성역할 정체감을 지니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지각하게 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에는 이 연구에서와 같이 여성성과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이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지 않아야만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성과 성역할 정체감이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성격특성의 영향까지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Zimmerman과 West(1975)를 포함한 1970년대의 의사소통 연구는 물론 1980년대의 Bruke와 Reitze(1981), Drass(1986)의 연구, 1990년대의 Tannen(1990, 1993)의 연구 그리고 최근의 Edwards와 Hamilton(2004)이나 장휘숙과 최영임(2004)의 연구 모두 성과 성역할 정체감 중 어느 요인이 실제적 의사소통이나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과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성이나 성역할 정체감도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지만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인의 성격특성이라는 것이다. 즉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보다 그리고 외향성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보다 동성은 물론 이성과의 의사소통을 더 어렵다고 지각하고, 두가지 성격특성만이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을 유의하게 설명함으

로써 성격특성과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McCroskey, Ralph & Barrick, 1970; Keaten 등, 1993; McLeod & Cohn, 1993; Edwards 등, 2001)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들이었다.

이와같이 개인의 성격특성은 성이나 성역할 정체감보다 개인의 의사소통 지각에 더 큰 영향을 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정서적 불안정성이나 외향성 외에도 다양한 성격특성들과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성격 프로파일과 의사소통 어려움 지각의 전체적 양상이 규명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은 실제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양상과는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는 의사소통에 대한 지각된 어려움과 실제적 의사소통의 관계도 함께 연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노동부(2000). 직업선호도검사 실시요람.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 장휘숙, 최영임(2004). 개인의 성과 성역할 정체감이 대화의 중단과 대화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4), 107-120.
- 정진경(1990). 한국 성역할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82-92.
- Basow, S., & Rubenfeld, K. (2003). Troubles talk: Effects of gender and gender-typing. *Sex Roles*, 48(3/4), 183-187.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roverman, I. K., Vogel, S. R., Broverman, D. M., Clarkson, F. E., & Rosenkrantz, P. S. (1972). Sex-role stereotypes: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28, 59-78.
- Burke, P. J., & Reitze, D. C. (1981). The link between identity and role performance.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4: 83-92.
- Drass, K. A. (1986). The effect of gender identity on conversatio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4), 294-301.
- Eagly, A. H.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 Edwards, R. (1998). The effects of gender, gender role, and values on the interpretation of messages.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7(1), 52-71.
- Edwards, R. (2000). Interpreting relational meanings: The influence of sex and gender-role.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Vol. 17(1), 13-21.
- Edwards, R., & Hamilton, M. A. (2004). You need to understand my gender role: An empirical test of Tannen's model of gender and communication. *Sex Roles*, Vol 50, Nos. 7/8, 491-504.
- Edwards, R., Bello, R., Brandau-Brown, F., & Hollems, D. (2001). The effects of loneliness and verbal aggressiveness on message interpretation. *Southern communication Journal*, 66, 139-150.
- Gilbert, L. A. (1981). Toward mental health: The benefits of psychological androgyny.

- Professional Psychology*, 12(1), 29-38.
- Keaten, J., Kelly, L. A., Begnal, C., Heller, D., & Walker, A. (1993).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reticenc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Miami Beach, FL, USA.
- Knapp, M. L., Ellis, D. G., & Williams, B. A. (1980). Perceptions of communication behavior associated with relationship terms. *Communication Monographs*, 47, 262-278.
- MacLeod, C., & Cohen, I. L. (1993). Anxiety and the interpretation of ambiguity: A text comprehension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238-247.
- Maltz, D. N., &orker, R. A. (1982). A cultural approach to male-female miscommunication. In J. J. Gumperz (Ed.), *Language and social identity* (pp.196-216).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Call, G. J., & Simmons, J. L. (1966). *Identities and interac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 McCroskey, J. C., Ralph, C. C., & Barrick, J. E. (1970). The effect of systematic desensitization on speech anxiety. *Speech Teacher*, 19, 32-36.
- Spence, J. T., & Helmreich, R. L. (1983). Achievement-related motives and behaviors. In J. T. Spence (Ed.), *Achievement and achievement motives*. San Francisco: Freeman.
- Stryker, S. (1980). *Symbolic interactionism: A social structural version*. Menlo Park: The Benjamin/Cummings Publishing Co.
- Tannen, D. (1990). *You just don't understand: Women and men in conversation*. New York: Morrow.
- Tannen, D. (1993). The relativity of linguistic strategies: Rethinking power and solidarity in gender and dominance. In D. Tannen (Ed.), *Gender and conversational interaction* (pp. 165-18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horne, B., & Henley, N. (1975) (Eds.) *Language and Sex: Difference and dominance*. Rowley, MA: Newbury House.
- West, C., & Zimmerman, D. H. (1977). Women's place in everyday talk: Reflections on parent-child interactions. *Social Problems* 24: 521-528.
- Zimmerman, D. H., & West, C. (1975). Sex roles, interruptions and silences in conversation. In B. Thorne & N. Henley (Eds.). *Language and sex: Difference and dominance*. Rowley, MA: Newbury House.

---

1차 원고 접수 : 2006. 4. 15

수정 원고 접수 : 2006. 5. 18

최종게재결정 : 2006. 5. 19

## The effects of gender, gender role identity,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the perceived communication difficulty

Young Im Choi

Hwee 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gender, gender role identity and two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n the perceived communication difficulty with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Statistical analysis revealed in the same-sex communication female perceived more communication difficulty than male, but in the opposite-sex communication no gender effect was found. Gender role identity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ame- and opposite-sex communication. That is, the person with the androgynous and masculine gender role identity perceived the lower level of communication difficulty than feminine and undifferentiated the one in the same- and opposite-sex communication. Also the person with the low level of neuroticism and high level of extraversion has low level of perceived communication difficulty. And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extraversion has the greatest effect, which is followed by neuroticism, but the masculinity and femininity has no effects on the perceived communication difficulty in male and female.

Keywords: *perceived communication difficulty, gender role identity, personality characteristics*